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교사용 수업 안내서



아웃박스 outbox.kr

차별을 금지하는



교사용 수업 안내서



아웃박스 outbox.kr

Part.1 프로그램 소개

1. 기획 배경 - 왜 지금, 차별금지 교육인가	05
2. 프로그램 개요	05
3. 주제 한눈에 보기	06
4. 미리 알아두는 핵심 개념	07
5.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10

Part.2 주제별 수업 안내

[1주제] 차별, 너와 나의 이야기	16
[2주제] 선택이 쌓여 세상이 된다	24
[3주제]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그리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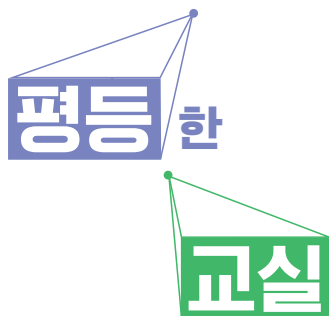
Part.3 교실 문을 열기 전, 선생님께 전하는 이야기

1. 성 다양성 관련 개념, 흔들림 없이 가르치기	41
2. 교실 속 '숨은 당사자'를 지키는 안전한 대화법	44
3. 교실 내 혐오 표현에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45
4. 질문과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힘 기르기	46

Part.4 교실에서 증명된 변화: 효과 검증 리포트

1. 조사 개요	48
2. 한 눈에 보는 핵심 결과	50
3.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	52
4. 교사에게 나타난 변화	60
5. 종합 해석 및 제언	69
6. 숫자에 담기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	72

차별을 금지하는



교사용 수업 안내서



Part.1

프로그램 소개

1. 기획 배경 - 왜 지금, 차별금지 교육인가
2. 프로그램 개요
3. 주제 한눈에 보기
4. 미리 알아두는 핵심 개념
 - 차별과 ‘조각(특성)’
: 단일 범주론 극복을 위한 교차성 이론 도입과
‘조각’의 교육적 의미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반차별 기준의 적용 범위와 권리 보장의 구체화
 - 구조적 차별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 미시적 편견에서 거시적 제도로의 시선 확장
5.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1. 기획 배경 - 왜 지금, 차별금지 교육인가

- 학교 안팎에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은 이미 학생들의 일상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게이’, ‘트젠’, ‘애자’, ‘페미’, ‘~린이’ 같은 말이 놀림과 농담처럼 오가지만, 정작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 ‘나는 차별을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여기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차별을 개인의 나쁜 마음이나 특별한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차별을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관련된 일상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차별은 일어날 수 있고, 차별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선택들이 쌓여 차별적인 사회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나아가 차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법·제도·캠페인)을 살펴보고,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직접 제안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프로그램 개요

주제	학습 목표	핵심 활동
1주제 차별, 너와 나의 이야기	차별의 의미를 알고, (누구나) 차별받거나 차별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당연하지 않은 일들 • 조각조각 들여다보기 • 나의 조각, 나의 이야기
2주제 선택이 쌓여 세상이 된다	선택 게임에 참여하고, 나의 선택이 사회의 차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할 수 있다.	• 게임 <나의 선택은?> • 선택의 결과 • 결과 돌아보기
3주제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그리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고,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노력 •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그리기 (법·제도·캠페인 제안 및 공유)

3. 주제 한눈에 보기

수업의 세가지 주제는 ‘인식 → 구조 이해 → 실천’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1주제 인식

차별이란 무엇이고, 누가 차별하는가?

➔ ‘나쁜 의도가 없어도, 누구나’ 차별할 수 있음을 안다

2주제 구조 이해

나의 선택은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개인의 선택이 쌓여 구조(세상)가 됨을 체험한다

3주제 실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법·제도·캠페인의 역할을 알고 실천을 제안한다

4. 미리 알아두는 핵심 개념

☑ 차별과 ‘조각(특성)’

: 단일 범주론 극복을 위한 교차성 이론 도입과 ‘조각’의 교육적 의의

- 이 프로그램에서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인종, 나이,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취향 등)을 ‘조각’으로 명명한 것은 현대 여성주의 및 비판인종이론의 핵심 개념인 ‘교차성* Intersectionality’을 초등학교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 기존의 반차별 교육은 대개 ‘성차별’, ‘장애인 차별’, ‘다문화 교육’ 등 특정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단일 범주적 접근Single-axis framework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단 하나의 범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정체성이 융합된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 ‘조각’이라는 은유는 한 인간이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속성의 결합체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특정 조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사회적 특권이 될 수도 있고 차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다면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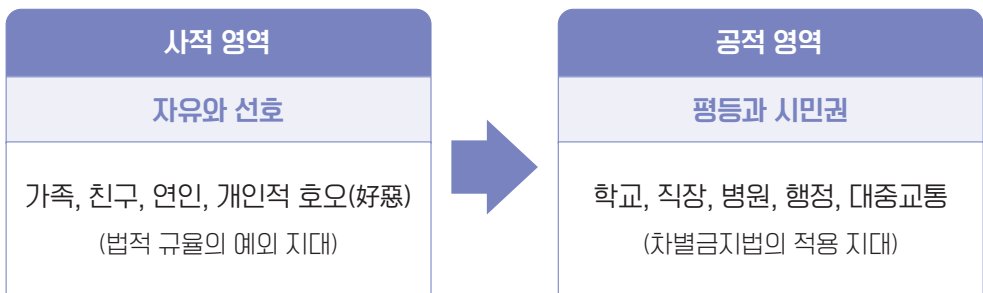


* **교차성(Intersctionality)**은 미국의 법학자 김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 1989)가 제시한 개념으로,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사회적 정체성(인종·성별·계급·장애 등)이 서로 얹히면서 각각 따로 떼어 볼 때와는 다른 차별 경험을 만들어 낸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은 ‘흑인이라서 겪는 차별’과 ‘여성이라서 겪는 차별’을 단순히 더한 것과 다르다. 이 프로그램의 ‘조각’ 개념은 이처럼 한 사람 안에 여러 정체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을 초등학교생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반차별 기준의 적용 범위와 권리 보장의 구체화

- 초등학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지 않는 것도 차별인가?”와 같은 ‘개인적 호오(好惡)의 영역’과 ‘차별’의 경계입니다. 이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학 및 사회학에서 다루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분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 사적 영역은 개인의 자유와 감정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적 영역(고용, 교육, 재화·서비스의 제공, 행정 서비스 등)은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자원이 분배되는 공간입니다. 이 영역에서의 배제는 시민권의 박탈이자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차별 행위의 범위를 이러한 공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공적 차별 금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 이 개념을 제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해야 한다’는 도덕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제도와 공간의 공공성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사는 사적 감정의 자유와 별개로, 공적 공간에서의 차별 금지가 시민의 필수적 의무임을 학생들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구조적 차별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 미시적 편견에서 거시적 제도로의 시선 확장

[구조적 차별 Structural Discrimination의 이해]

- 구조적 차별이란 개인의 선의나 악의와 상관없이 사회의 제도·관행·문화 속에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이미 내재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별을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은 개인의 일탈로만 보면 제도와 관행 뒤에 숨은 거시적 불평등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관행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배제한 채 설계된 대중교통이나, 특정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상정하는 행정적 절차 자체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면 이는 ‘구조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필요성과 프로젝트의 의미]

• 포괄적 Comprehensive 차별금지법의 의미

차별 금지를 다루는 기존의 한국 법 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정체성이나 영역에 따라 법률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예: 이주 여성 노동자가 겪는 중첩적 배제)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보편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 역사적 지체와 교육적 과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이후 개신교 보수 진영 및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 20년 가까이 제정과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명칭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학교 현장이 선제적으로 시민사회의 평등적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5.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

초등학교	
교과(과목)	성취기준
통합교과	[2바02-01]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한다. [2바02-03] 차이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생활한다. [2바03-04] 공동체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삶의 방식을 찾아 실천한다.
국어	[4국03-03]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 [6국01-02] 주장을 파악하고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며 듣는다. [6국06-03] 적합한 양식과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사회	[4사03-02]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사09-01]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6사03-01] 일상 사례에서 법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일상 생활에서 구현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인권 친화적 태도를 기른다. [6사03-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도덕	[4도03-01] 불공정의 사례를 탐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실천 의지를 함양한다. [6도02-02]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색하여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 방안을 탐구한다.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 [6도03-02] 정의에 관한 관심을 토대로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직접 공정한 규칙을 고안하며 기초적인 시민의식을 기른다.

중학교

교과(과목)	성취기준
도덕	[9도03-01]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정당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기른다. [9도03-02]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타문화 타종교 타인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기른다. [9도03-04]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해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일반 사회	[9사(일사)01-03]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9사(일사)03-01]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도출한다. [9사(일사)05-02] 우리의 일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을 탐색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회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의한다. [9사(일사)06-01]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를 탐색한다. [9사(일사)12-02] 오늘날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9사(일사)12-03]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국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보건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근거와 맥락, 고정 관념, 차별,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여 균형 있고 평등한 성문화를 조성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9보05-05]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포함하여 건강지향적 문화와 환경을 지지 옹호한다.
국어	[9국03-04]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주장하는 글을 쓴다.

고등학교

교과(과목)	성취기준
통합사회	[10통사2-01-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10통사2-01-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와 문화	[12사문04-02]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고, 차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2-01]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 불평등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2사탐04-04] 자신의 사회문제 탐구 과정과 결과를 연구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자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며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현대사회와 윤리	[12현윤04-02]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시민불복종의 조건 및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12현윤06-01]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을 실천할 수 있다.
윤리문제 탐구	[12윤탐02-03] 사회적 차별 표현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탐05-02] 수립한 탐구 계획에 따라 윤리문제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교과(과목)	성취기준
공통 국어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10공국2-01-02] 쟁점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며 협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운영 중점
자율·자치 활동	· 생활 속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함양 · 민주적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이해와 실천

※ 연계성

- 포스터, 피켓, 연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차별 반대 캠페인을 기획하고 디지털 플랫폼(패들릿)을 활용해 전국의 교실과 캠페인 작품을 공유하는 실천적 시민 참여 활동으로 실행 가능하다.



Part.2

주제별 수업 안내

[1주제] 차별, 너와 나의 이야기

- 지도안 (수업 흐름)
- 학생 활동 과정 및 결과물

[2주제] 선택이 쌓여 세상이 된다

- 지도안 (수업 흐름)
- 게임 개요
- 게임 내용 요약
- 학생 활동 과정 및 결과물

[3주제]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그리다

- 지도안 (수업 흐름)
- 학생 활동 과정 및 결과물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차별, 너와 나의 이야기

➤➤➤➤➤➤➤➤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선택이 쌓여 세상이 된다

➤➤➤➤➤➤➤➤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그리다

➤➤➤➤➤➤➤➤

[1주제] 차별, 너와 나의 이야기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차별, 너와 나의 이야기

➤➤➤➤➤➤➤➤

 아웃박스 outbox.kr

학습 목표

차별의 의미를 알고, (누구나) 차별받거나 차별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질문

나쁜 마음이 없어도 차별할 수 있을까?

구분	기본 활동	선택 활동
소요 시간	2차시(80~90분, 연차시 권장)	1차시(40분)
준비물	수업 슬라이드, 이야기 영상, 조각 스티커, 활동지	차별사례 기사 5종, 추가 활동지(뉴스 속 차별 사례 분석 활동)

지도안 (수업 흐름)

단계	시간(분)	활동	자료
도입	10	[함께 생각해보기] - 세 가지 질문으로 생각 열기 ①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는 어떠한가요? ② 차별은 어떤 사람이 할 것 같나요? ③ 나쁜 마음이 없어도 차별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잇
	! 수업 후 생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초기 답변을 칠판에 그대로 유지		
전 개	활동 ①	[이야기: 당연하지 않은 일들] 영상 속 차별 상황 포착하기	영상 자료
	활동 ②	[조각조각 들여다보기] - 조각(특성) 개념 도입하기 → 인물 조각 찾기 - 차별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인지 아닌지 논의하기 - 인물들이 겪은 차별과 행한 차별을 연결하며 ‘누구나’ 차별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활동지, 조각 스티커
	활동 ③	[나의 조각, 나의 이야기] 나의 조각과 차별 경험을 포스트잇에 적고 나누기	포스트잇
	! 본인의 경험이나 당사자성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발표 강요하지 않기		
정리	10	[다시 생각해보기] - 도입의 세 질문을 다시 보며 생각 변화 확인하기 → 새로 알게 된 점·느낀 점 나누기	
선택 활동	-	[차별, 우리의 이야기] 모둠별 차별 사례 기사 분석하기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약자, 성소수자)	활동지



이 수업 지도 Tip

‘조각’이 될 수 있는 특성들

인종, 나이, 성별, 장애, 성적 지향 같은 대표적인 특성 외에도, 학생들은 “시력도 조각이에요?”, “키도 조각이에요?”라며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각’은 차별의 표적이 되는 특정 조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여러 개씩 가지고 있는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라는 점을 짚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특성이든 나를 이루는 조각이 될 수 있으며, 그 조각이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사실이나 일시적인 경험을 정체성으로 나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활동 과정에서 단발성 사건이나 외적 조건에 그치지 않고, 나의 취향·재능·성격 등 **나를 이루는 지속적인 정체성의 조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차별받은 적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아이들이 차별 경험을 선뜻 꺼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약자나 소수자로 낙인찍히거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경험 유무를 다그쳐 묻기보다는 차별이란 ‘불쌍한 누군가가 당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임을 명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험의 대상을 꼭 본인에게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미디어 등 우리 주변에서 목격했을 법한 사례로 질문을 넓혀주면 대화의 문턱이 훨씬 낮아집니다. 여기에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먼저 공유하며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흑인 비하 표현이나 ‘게이’ 같은 말을 따라 하며 웃는 분위기가 되었다

수업을 시작하며 내가 웃으며 넘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짧고 단호하게 짚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 전에 “오늘 나오는 표현들을 장난으로 소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다루어 보자”고 선언하며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가 먼저 단단한 울타리를 쳐 두는 것만으로도 수업이 장난이나 조롱으로 흐르는 흐트러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성적 지향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 낭만적, 성적 끌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취향’과 성적 지향은 다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지후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게이나”는 놀림을 받은 것은 이 둘을 뒤섞어 타인의 정체성을 함부로 단정하고 낙인찍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는 ‘취향’을 근거로 삼아, 타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을 함부로 추측하고 가십 거리로 소비하는 잘못된 건넌뛰기가 일어난 것이지요.

지후의 실제 마음이 어떠한 간에, 이 상황에서 정리해야 할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단편적인 취향이나 행동만 보고 그의 성적 지향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낙인찍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타인의 정체성을 함부로 넘겨짚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무례한 행동입니다.)

둘째, 설령 당사자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놀림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짚어주어야 학생들이 단순히 “놀리면 안 된다”는 당위적 수준을 넘어, ‘타인의 정체성을 대하는 태도의 무례함’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라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실 속 질문 상자: 차별일까, 아닐까?

수업에서 차별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선 근거·이유 없음·상처와 손해)을 배우고 나면, 학생들은 저마다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례를 들고 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차별 판단의 핵심은 ‘다르게 대하는 모든 것이 차별은 아니다’라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Q1. “키가 작다고 놀이기구를 못 타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핵심 개념

안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제한)

- 키 제한은 특정 아동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안전 확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으므로 차별이 아님을 안내해 주세요. 신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탑승 시 안전장치가 몸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어른이 놀이터의 유아용 미끄럼틀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일까?” 같은 반대 사례를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아의 충돌 위험 방지’나 ‘시설물 파손 우려’처럼 해당 제한 조치에 합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기준의 합리성을 스스로 따져보는 배움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Q2. “장애 학생에게 시험 시간을 더 주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핵심 개념

형식적 평등 vs 실질적 평등, 정당한 편의 제공

- ‘똑같이 대하지 않았으니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기계적인 조건의 동일함이 왜 불평등을 낳는지 안내해 주세요. 손을 움직이거나 문항을 읽는 데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에게 일반 학생과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것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한 조건(형식적 평등)만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짚어주어야 합니다.

Q3. “대중교통에 임신부 배려석을 따로 두고 비워두게 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요?”

핵심 개념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 실질적 기회 및 안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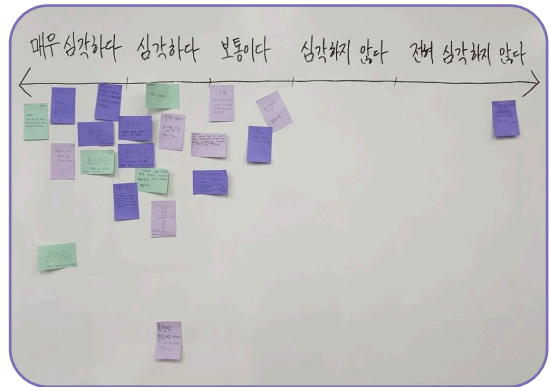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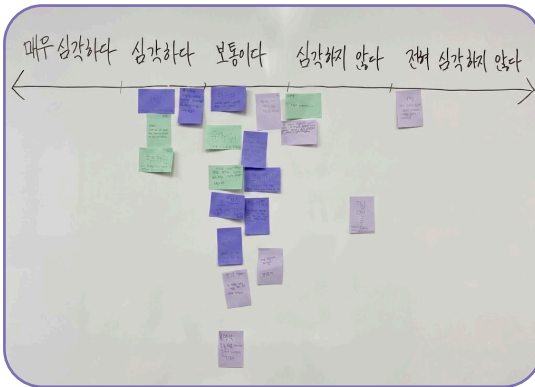
-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 ‘역차별’로 오해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임**을 안내해 주세요.
- 임신부가 좌석을 구하지 못했을 때 겪는 위험은, 비임산부가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해 겪는 일시적인 불편함에 비해 현저히 크고 치명적입니다. 즉,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회적 배려이자 조치임을 설명해 줍니다.

Q4. “회사에서 자격증이나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핵심 개념	타고난 특성 (정체성 조각)	vs	획득 가능한 자격(조건), 합리적인 자격 제한
-------	--------------------	----	------------------------------

- 특정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지원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얼핏 차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자격 조건’입니다. 영어 교사를 채용할 때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요건은 개인이 노력과 준비를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반면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은 안 된다”, “나이가 너무 많다”와 같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정체성(조각)**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특성에 대한 배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세요.

✓ 학생 활동 과정 및 결과물



① 누가 차별받았나요? 어떤 조각(특성) 때문에 차별받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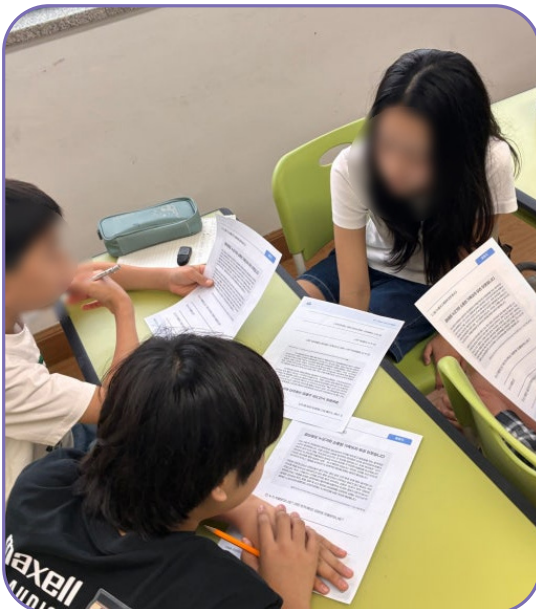
여성들,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② 누가 차별했나요?

은행 직원들이 차별했습니다.

③ 내가 차별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억울하고 내가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2. 나의 조각 때문에 차별받은 적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나요?
나의 경험을 적어 봅시다.

나의 경험 - ~~엄마와~~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하였는데, 애들이

엄마가 더 낫다고 느낌.

그때의 기분 - 모욕적인 실거 싫음.

나의 경험 - 친구한테 '조롱'이라 함. (피복 어둡음)

[2주제] 선택이 쌓여 세상이 된다



학습 목표

선택 게임에 참여하고,
나의 선택이 사회의 차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할 수 있다.

탐구 질문

나의 작은 선택들은 사회의 차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분	내용
소요 시간	2차시(80~90분, 연차시 권장)
준비물	수업 슬라이드, 역할 카드, 활동지, 점수 기록표

✓ 지도안 (수업 흐름)

단계	시간(분)	활동	자료
도입	5	[함께 생각해보기] 요가학원 남성 탈의실 딜레마 상황을 통해 선택과 그 결과 예상하기	
! 학습목표는 수업 마무리에 제시할 수 있음			
전 개	활동 ①	[게임 <나의 선택은?>] - 역할(결정자, A, B, 자유인) 및 게임 방법 안내 - 선택 점수 배정 기준 안내 4가지 딜레마 상황 수행 후 선택 점수 합계 확인	역할카드, 점수기록표
	활동 ②	[선택의 결과 확인] - 숨겨진 '세상 점수'(차별 없는 선택 +5점 / 차별 있는 선택 -5점) 기준 공개 4개 상황별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결과 확인하기 - 개인별 선택 점수와 최종 점수를 비교하고, 순위와 점수가 뒤바뀐 이유에 대해 토론하기	
	활동 ③	[결과 돌아보기]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왜 세상 점수가 낮아졌을까?”, “다시 선택하고 싶은 상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던지기 4개 상황별 선택 뒤에 숨은 사회적 편견과 분위기 정리하기	활동지
정리	10	[수업 정리] 나의 선택과 사회적 차별의 연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 게임 개요

활동 목표

게임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차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험하고,
구조적 차별의 양상 및 재생산 과정을 이해한다.

개인 점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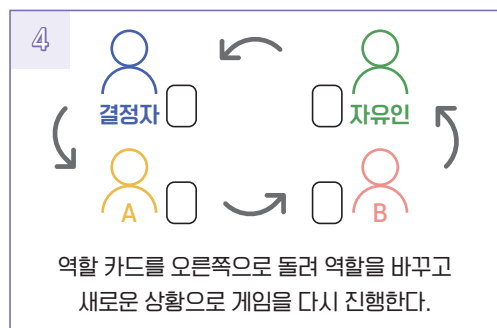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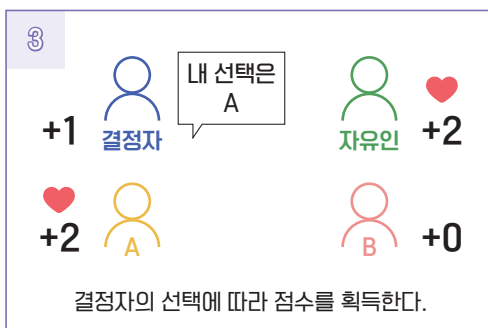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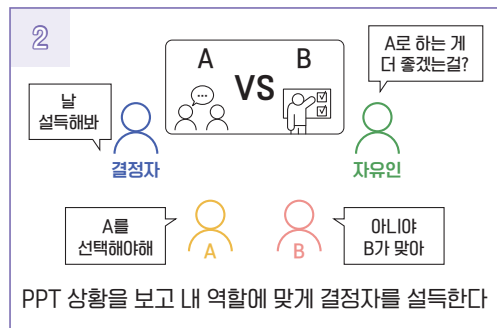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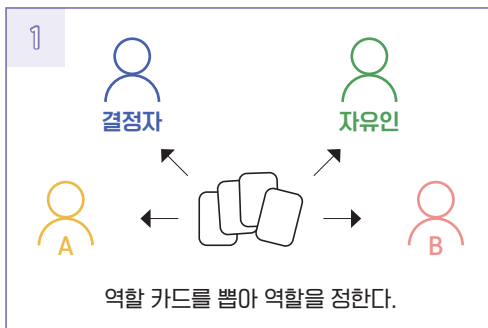
학생이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장하더라도 논리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으면 결정자의 선택을 받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선택이 차별적인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세상 점수의 의미

앞서 한 선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점수이다. 우리 모두의/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반대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최종 점수의 의미

개인 점수가 높았더라도 차별적인 선택을 했다면 세상 점수가 낮아져 최종 점수도 낮아진다. 이는 당장은 나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더라도, 차별은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개인의 이익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게임 내용 요약

상황 1. 누구를 팀장으로 뽑을까?



쟁점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 (임신·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한 배제)

이 상황을 단순한 '야근 가능 여부'의 문제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은 결혼·육아로 야근을 못 할 것'이라 단정짓고
기회를 차단하는 성별 편견이 본질임을 명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선택



경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팀장 선정

차별 있는 선택



야근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팀장 선정

상황 2. 디지털농업기술교육프로그램, 참가조건



쟁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교육·기회 참가 제한)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인 '나이'만을 근거로 배움의 기회를 차단한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 안 될 것'이라 단정하는 태도의 부당성을 짚어주세요.

나이가 그 일을 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조건인지 학생들이 직접 따져보도록 유도해 주세요.



차별 없는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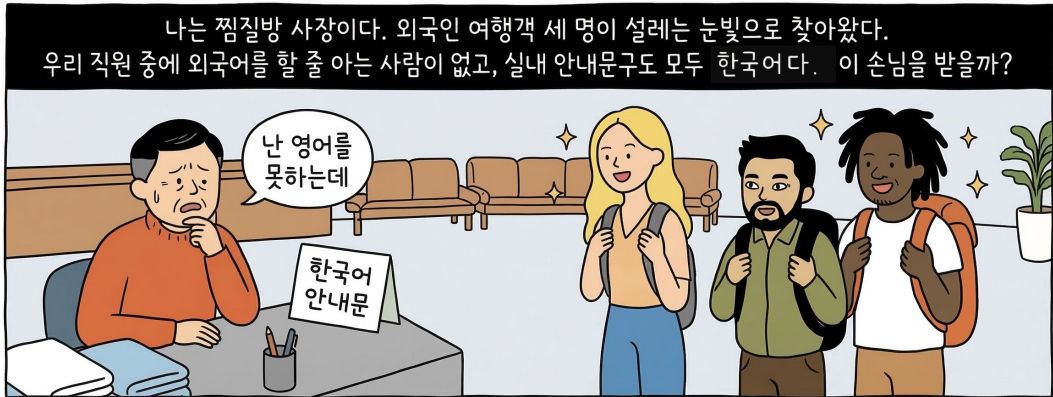
나이 제한 없이 선발

차별 있는 선택



젊은 사람 위주로 나이 제한하여 선발

상황 3. 찜질방 사장, 외국인 손님을 받을까?



쟁점

출신·언어를 이유로 한 차별 (서비스 거부)

“정중하게 거절했으니 차별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말과 태도의 공손함은 차별의 강도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뿐, 배제라는 결과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손님의 잘못이 아닌 오직 ‘출신과 언어’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했다면 태도와 무관하게 명백한 차별임을 명확히 짚어주세요.



차별 없는 선택



문화와 언어를 고려한 수용과 안내

차별 있는 선택



문화·언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

상황 4. 장애인 콜택시, 누가 먼저 이용할까?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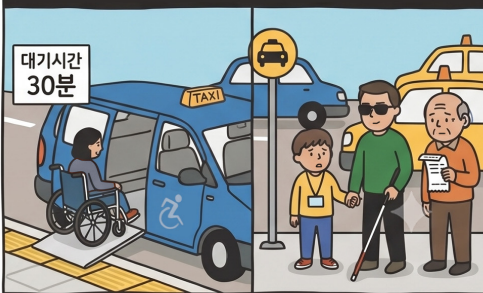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 (기계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장애 종류와 무관하게 무조건 똑같이 선착순으로 대기하게 하는 규칙은 겉보기엔 공평해 보이지만, 리프트가 꼭 필요한 휠체어 사용자는 그만큼 더 오래 기다리게 되어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결과적 차별이 됩니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기계적 평등이 도리어 특정 장애 유형에게는 불평등을 낳는 현실을 짚어주세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법정 대수 이상 확보돼 있지만, 체감 대기시간은 평균 44.6분에 달한다. 휠체어 미이용 승객까지 함께 물리며 정작 휠체어 이용자의 차량 회전이 늦어지는 탓이다(경기연구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연구》, 2026.7.).

차별 없는 선택

휠체어 사용자 먼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장애인에게는 일반 택시비를 지원한다.



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차별 있는 선택

장애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장애인이 똑같이 기다려 선착순으로 콜택시를 이용한다.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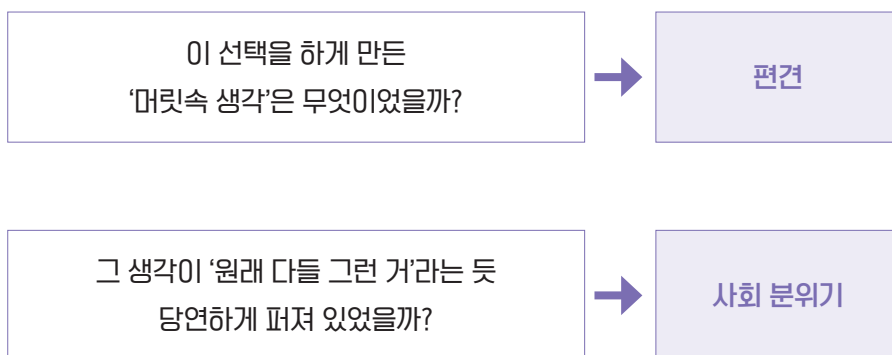
이 수업 지도 Tip

‘편견’과 ‘사회 분위기’의 차이

둘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학생도 교사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편견은 ‘머릿속 생각’이고 사회 분위기는 ‘그 생각이 퍼져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게 된 관습이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힘든 일을 못 할 거야”가 한 개인의 편견이라면, 그런 생각이 조직이나 공동체 전체에 퍼져 “원래 여기선 여자를 안 뽑아”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회 분위기입니다. 즉, 개개인의 편견이 여러 사람에게 쌓이고 굳어지면 하나의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요.

수업 중 학생들이 이 개념을 어려워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질문해 주세요.



“세상 점수가 깎인 건 결정자가 잘못 골라서 아닌가요?”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은 대개 최종 선택을 한 결정자를 탓합니다. 하지만 결정자는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A와 B가 펼친 주장을 듣고 그중 하나를 고른 것입니다.

“결정자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설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되물어 보세요. 차별적인 선택을 부추긴 주장자에게도, 그 주장에 동조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지목해 탓하는 대신, ‘우리 모두의 선택이 세상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주세요.

게임은 즐겁게 했는데, 의미 찾기로 연결하기가 어렵다면

수업 중 진행한 ‘선택 게임’의 재미가 큰 만큼, 결과를 해석하는 후반부 활동이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게임의 열기가 남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져 보세요.

“방금 우리 반이 만든 세상은 살 만한 곳일까?”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지?”

게임 속 상황을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 등장한 여성의 경력 단절 상황을 언급하며, “혹시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신 가족이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게임 속 이야기가 교실 밖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해 주면, 학생들도 단순한 재미를 넘어 게임이 품은 사회적 의미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학생 활동 과정 및 결과물



1. 선택 게임을 하며 내 점수를 기록해 봅시다.

점수 기록표					
상황	나의 역할	결정자 선택	선택 점수	(선택) 점수	(자유인) 점수
상황 1	결정자	A	+1	-5	-4
상황 2	자유인(A)	A	+2 (3)	+5	+7
상황 3	B	B	+2 (5)	-5	-3
상황 4	A	A	+2 (7)	-5	-3

-3

2. 게임 결과를 돌아보며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① 나쁜 마음으로 한 선택이 아닌데, 왜 세상 점수는 낮아졌을까요?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분개와 회개

② 게임에서 다시 선택하고 싶은 상황이 있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황 3에서 외국인들을 다쳐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냥 A 처럼 하고 싶었다.

3. 차별있는 선택 뒤에는 어떤 편견이나 사회 분위기가 숨어있을까요?

상황1	상황2
- 여자는 일본보다 가정이 먼저라는 편견 - 아이를 낳으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분위기	- 남자로 정권 시작부터 유배자의 편견 - 남성은 사형용역을 시작하기 어려운 분위기
상황3	상황4
- 외국인은 위험하거나 의심해야 하는 편견 - 다문화 학생들을 정상 학생과 같은 분위기	- 아메리칸 비아비렌스의 동화가 부흥하는 편견 - 아메리칸의 복원력을 대변하는 분위기

Notes. 제작한 사람과 날짜 확인

② 믿음만한 출처가 있는지 확인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타당성

→ 미디어를 무조건 믿지 않고, 먼저 의심하기
도덕

* 우리 선택이 세상은 바뀐다!

-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선택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3주제]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그린다



학습 목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고,
시민으로서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탐구 질문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분	내용
소요 시간	2차시(80~90분) ※ 실천활동(캠페인·법 제안)에 넉넉한 시간이 필요
준비물	수업 슬라이드, 활동지(법안 제안서), 캠페인 재료, 패들렛 링크

지도안 (수업 흐름)

단계	시간(분)	활동	자료
도입	5	[‘차금이’ 캐릭터 만나기] 캐릭터 ‘차금이(오리너구리)’의 특성을 통해 ‘다름이 이상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 나누기	
전 개	활동 ①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권리]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차별 구분하기 - 공적 영역의 4대 분야(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행정) 이해하기	
		! 사적·공적 차별을 단순히 장소의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공적 영역 차별이 개인의 삶과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	
	활동 ②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노력] - 법 제정, 캠페인, 제도·시설 정비 사례 살펴보기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법이 필요한 이유 탐구하기 - 초·중등교육법 차별 금지 사례 및 대만 동성결혼법 사례 분석하기	
	활동 ③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기] - 모둠별로 실천 방법 선택하여 제작하기 [선택 1] 캠페인 자료 만들기 : 대상·내용 정하기 → 형식 선택 → 제작 [선택 2] 필요한 법 제안하기 : 대상 정하기 → 내용 기획 → 제안서 작성	활동지, 캠페인 제작 도구, 태블릿 등
		! 법 제안 활동 시 ‘보호 대상 및 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안내	
정리	10	[함께 나누기] 완성된 작품을 패들렛 지도에 업로드하고 전국의 교실들과 함께 나누기	스마트 기기



이 수업 지도 Tip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이럴 때는 까다로운 용어로 접근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일인가, 아닌가?”로 기준을 나누어 주면 훨씬 쉽습니다.

내 생일파티에 누구를 부를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이지만, 학교·병원·대중교통처럼 누구나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곳에서 특정 사람을 막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적 영역’의 일입니다.

수업 중에는 다음과 같은 발문을 던져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세요.

“어떤 차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빼앗기도 해. 그게 바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차별의 중요한 차이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칼로 자르듯 완벽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일수록, 한 사람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 금지의 방법으로 ‘법’을 제시하는 이유

“활동 3에서 왜 갑자기 ‘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업에서 차별 금지의 방법으로 ‘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차별은 개인이 참고 넘기거나 혼자 애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바꿔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학생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실에서 마주한 낱알의 차별들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하나의 원칙으로 꿰어 내고, 그 원칙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지요.

차별을 막는 일을 개인의 선의나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제도로써 보장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오늘 직접 법을 제안해 보는 경험은 “나에게도 차별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성별·장애·나이·인종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도록 사회가 한꺼번에 약속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까지 학생들 스스로 그 의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법’ 하면 ‘처벌’만 떠올리는 학생들

법을 만들자고 하면 학생들은 대개 “차별하면 벌금 100만 원”, “감옥 10년” 같은 강력한 처벌부터 떠올립니다. 이럴 때는 **“벌을 주는 것 말고, 차별받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져 보세요. 법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역할도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처벌 그 자체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법이 “이 행위는 차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사람들은 그동안 무심코 넘기던 문제를 비로소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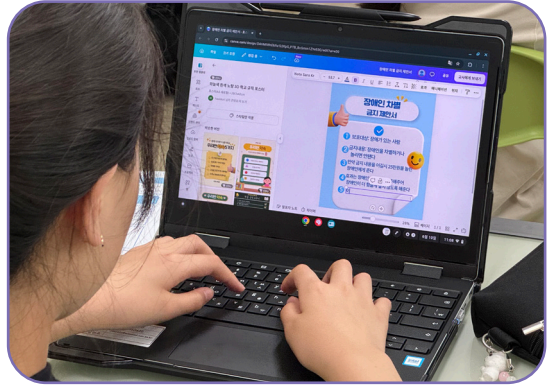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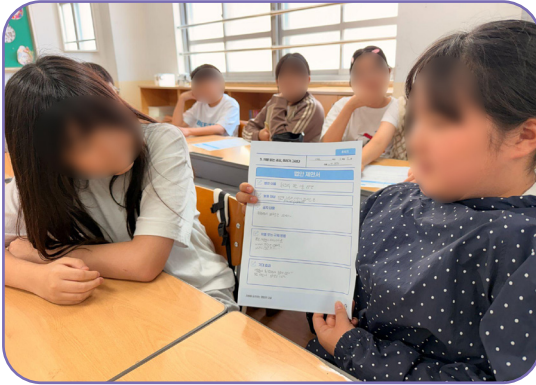
예시 활용하기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게가 있다면,
‘주인을 처벌하는 법’에서 그치지 않고
‘가게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지원·강제하는 법’까지
생각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활동 Tip

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 때
[처벌·구제(보호)·예방] 요소를 각각 하나씩 포함하도록
활동지를 구성해 보세요.
처벌에만 쏠리지 않고 균형 잡힌 법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학생 활동 과정 및 결과물



「학교 내 차별은 NO!

보호대상: 외모가 다른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하는 친구들.

금지내용: 나와 다르다고 놀리지 않기 ✖

차별 또는 구제방법: 반성문 작성, 계도금, 퇴학

기대효과: 법밖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자체기 바뀔 수 있음.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안

PROFILE PROFILE PROFILE PROFILE

'성적지향' 포함된 차별금지법..정부 논의 재개에 찬반 격돌 조짐

보호 대상
개인의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지 내용

- 고용차별: 채용 거부, 부당 해고, 승진 누락, 직장 내 괴롭힘
- 교육차별: 동급생이나 선생님한테로부터 따돌림, 언어적 폭력, 입학 거부 및 징계
- 임상생활지원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용 방해, 주거 임대 거부, 은행 대출 및 보험 가입 불이익

처벌 또는 구제 방법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보상으로 하고 봉사활동 1개월

기대효과

-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됨

국립 50%, 차별금지법안 성취지향 포럼 연례...국립 40%, 차별금지법 반대

CAFÉ

이제부터 차별 없는 카페를 열겠습니다.

아름다운 커피는 '정신'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NO!

차별 없는 카페

우린 모두! 하나! 빈

우리는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금지내용: 인종차별

기대효과 ♥

- 자신의 인종을 편파하지 않는다
- 서로의 인종을 존중한다
- 인종에 대해서 기본 이해를 할 수 있다.

차별 없는 지구

2학년 4반 차금지들



Part.3

교실 문을 열기 전, 선생님께 전하는 이야기

1. 성 다양성 관련 개념, 흔들림 없이 가르치기
2. 교실 속 '숨은 당사자'를 지키는 안전한 대화법
3. 교실 내 혐오 표현에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4. 질문과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힘 기르기



여러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교실에서 먼저 실천하며 겪은 고민과 시행착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크고 작은 길잡이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 팁과는 별개로, 이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며 어느 수업에서든 마주할 수 있는 본질적인 고민들입니다. 차별을 다루는 수업은 그 특성상 예민한 정체성, 상처받기 쉬운 기억,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주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에서 이 수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풀어가야 할까” 막막한 마음이 들 때, 다음의 이야기들이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성 다양성 관련 개념, 흔들림 없이 가르치기

이 프로그램에는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를 다루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사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학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배경지식이며, 학생에게 안내할 때는 학년 수준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핵심 개념 명확히 구분하기

•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 “나를 어떤 성별로 인지하는가”

스스로를 어떤 성별로 인지하고 경험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완전히 독립된 영역이어서,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남성에게 끌릴 수도, 여성에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 지정성별: 태어날 때 신체적 특징에 따라 부여받은 성별
- 시스젠더: 지정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 트랜스젠더: 지정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 논바이너리: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하지 않는 사람
(성별이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관점)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누구에게 끌리는가”

스스로를 어떤 성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 신체적 특징에 따라 부여받은 지정 성별(남성 또는 여성)과는 구분됩니다. 보통 지정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성애(Heterosexual): 다른 성별에 끌림을 느끼는 것
- 동성애(Homosexual): 같은 성별에 끌림을 느끼는 것
- 양성애(Bisexual): 둘 이상의 성별에 끌림을 느끼는 것

성적 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무성애자Asexual, 낭만적 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무낭만애자Aromanti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적 지향은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학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지속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가변적입니다.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나 경험은 바뀌거나 발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향성과 정체성도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연예인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선호인 ‘취향’과는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사춘기 무렵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자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끌림, 행동, 자아정체성의 패턴이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패턴이 더 느리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 젠더 표현 (Gender Expression) “밖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옷차림, 말투, 머리 모양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분홍색을 좋아하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젠더 표현이자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흔히 하는 오해 바로잡기

• 오해 1. “재는 여자 같아, 게이 아니야?”

학생들은 겉모습이나 행동, 취향을 보고 타인의 정체성을 단정하거나,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의 개념을 뭉뚱그려 사용하곤 합니다. 취향이나 행동 방식만으로 타인의 정체성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됨을 짚어 주세요.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서로 다른 개념임을 설명해 주세요.

※ 참고: 성소수자를 뜻하는 LGBTQ는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트랜스젠더(T), 퀴어(Q)의 앞 글자를 딴 말입니다.

• 오해 2. “소수자라는 건 비정상이라는 뜻 아니야?”

‘소수’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소수자’는 사회적 다수와 다를 뿐, ‘비정상’이나 ‘열등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나 정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지도해 주세요.

현장 지도 가이드: 당황하지 않고 담백하게

학생이 “성적 지향이 뭐예요?”, “게이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지 말고, 위 정의를 학년 눈높이에 맞추어 담백하게 알려 주세요.

교사가 당황하거나 말을 아끼는 태도는 학생에게 ‘이것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설명을 덧붙이려다 오개념을 심어주기보다는, 정확한 정의를 간결하게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년에 따라 다루는 깊이는 조절하되,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메시지만큼은 어느 학년에서든 명확하게 전달되게 해 주세요.

2. 교실 속 ‘숨은 당사자’를 지키는 안전한 대화법

교실 안에는 우리가 다루는 차별의 당사자인 학생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혹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학생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당사자성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불리 단정하는 순간, 교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수업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학생을 예로 들거나 교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해?”처럼 당사자로 지목하는 질문이나 “우리 반에 외국인 친구가 있나요?” 같은 공개적인 확인, 특정 집단을 불쌍한 사람이나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동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선의로 건넨 말이라도 당사자 학생에게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거나 타자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든 대화를 ‘누구나 관련된 우리 모두의 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조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누구나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차별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차별을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의 문제로 접근할 때, 당사자 학생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 역시 이를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게 됩니다.

만약 수업 중에 특정 학생이 위축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다루기보다 수업이 끝난 후 조용히 따로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든 대화를
‘누구나 관련된 우리 모두의 일’로 풀어나가는 것

”

3. 교실 내 혐오 표현에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수업 주제와 상관없이 학생의 입에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유행어(밈)를 따라 하거나 ‘게이’, ‘애자’, ‘~린이’ 같은 단어를 놀림조로 쓰며 장난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대개 학생들은 정확한 의미나 맥락을 알고 쓰기보다,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곤 합니다. 이때 교사가 당황하여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해당 표현이 교실 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여겨져 더 자주 쓰이게 됩니다. 반대로 학생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면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위축되거나 반발심을 갖기 쉽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처는 **낮고 진지한 어조로 그 말이 누군가에게 왜 상처가 되는지 본질을 짚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되물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사전 예방**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오늘은 조금 예민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장난을 치거나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 해 봅시다”라고 명확히 약속해 두면 놀림으로 번지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쓴 학생을 ‘나쁜 아이’로 규정하기보다 잘 몰라서 썼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함께 배워 나가는 기회로 삼는 유연한 태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실 분위기를 지키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

**가장 바람직한 대처는 낮고 진지한 어조로
그 말이 누군가에게 왜 상처가 되는지 본질을 짚어 주는 것**

”

4. 질문과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힘 기르기

차별이나 인권을 다루는 수업에서 교사는 자칫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당위적인 정답만을 말해야 한다’는 태도로 흐름을 독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정해진 답을 향해 질문을 몰아가면, 학생들은 솔직한 생각을 꺼내는 대신 교사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는 모범 답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수업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학생들의 가치관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수업 도중 어떤 학생은 “이건 차별이 아닌 것 같은데요?”라며 교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그건 틀린 생각이야”라며 단칼에 자르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학생이 제시한 판단의 근거를 수업에서 합의한 세 가지 기준(선 근거·이유 없음·상처와 손해)에 스스로 비추어 따져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교사가 정답을 주입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 기준을 대입해 본 주체적인 경험 자체가 깊은 배움으로 남게 됩니다.

교사 또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존재임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수업은 교사가 정답을 내리고 훈육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과 나란히 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솔직하고 열린 태도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며, 민감한 주제도 안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듭니다.

“

곧바로 “그건 틀린 생각이야”라며 단칼에 자르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학생이 제시한 판단의 근거를 수업에서 합의한
세 가지 기준에 스스로 비추어 따져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

교실에서 증명된 변화 : 효과 검증 리포트

1. 조사 개요

- 학생·교사 사전·사후 설문 조사 개요
- 분석상의 유의사항

2. 한 눈에 보는 핵심 결과

3.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

- 지식 - 차별 개념에 대한 지식
- 인식(1) - 차별 상황에 대한 민감도
- 인식(2) - 자기 경험의 재인식
- 태도 - 차별에 대한 태도와 실천 의지

4. 교사에게 나타난 변화

- 지식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 인식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 태도 - 수업 실행에 대한 교사 효능감
- 수업 운영의 어려움 - 사전 예상과 실제 경험의 대비

5. 종합 해석 및 제언

- 종합 결론: 교실 안팎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 개선 과제 및 제언

6. 숫자에 담기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

-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
- 차별/평등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변화
- 수업으로 새겨진 질문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1. 조사 개요

✔ 학생·교사 사전·사후 설문 조사 개요

이 장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프로젝트의 교육 효과를 학생과 교사의 설문 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서포터즈 교사 20명이 각자의 교실에서 개발된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은 수업을 실행한 서포터즈 교사와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학생에게서는 차별 개념에 대한 지식, 차별 상황에 대한 민감도, 자기 경험의 재인식, 차별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지를, 교사에게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인식, 수업 실행에 대한 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리커트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복수 응답 문항은 응답 비율과 인원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분석상의 유의사항

이 장의 데이터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제약과 한계가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읽을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본 구성

• 학생 표본

- 학생 사전·사후 설문은 개별 학생을 식별하여 연결한 대응표본이 아니라 독립표본입니다. 따라서 각 수치의 변화는 개별 학생의 변화량이 아닌, 집단 평균의 이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사전 154명, 사후 132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후 표본은 사전 설문에 참여한 7개 학교로 한정하였습니다.

• 교사 표본

- 교사 설문 역시 사전 15명과 사후 11명의 응답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두 시점 모두 응답한 매칭 교사는 10명입니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 검정 대신, 평균값의 변화와 응답 분포를 중심으로 현장의 맥락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설문 문항 및 선택지 구성의 차이

• 진술 형태 및 질문 맥락의 차이

- 사전과 사후의 진술 형태가 달라 엄밀한 동일 문항 비교보다는 질문 맥락에 따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항들은 본문에서 사전·사후 문구를 함께 제시하고 해석상의 특징을 명시하였습니다.

• 선택지 구성의 차이

- 수업 운영의 어려움 문항의 경우 사후 설문에만 ‘예상보다 어렵지 않았다’라는 선택지가 추가되어 선택지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시점의 응답자 수가 달라 그래프는 비율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한 눈에 보는 핵심 결과

학생 영역 평균 지표(집단 평균 비교, 5점 척도)		사전 154명·사후 132명(7개교)
영역		사전·사후(△변화량)
지식	차별 개념에 대한 지식 (정답률 %)	+9.1%p 68.0 → 77.1
인식	차별 상황에 대한 민감도	+0.02 4.20 → 4.21
	자기 경험의 재인식	+0.30 2.90 → 3.20
태도	차별에 대한 태도와 실천 의지	+0.39 3.57 → 3.96

△(변화량)은 반올림 이전의 원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반올림 오차로 인해 단순 차감한 값과 표기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 영역 평균 지표(5점 척도)

사전 15명·사후 11명(매칭 10명)

영역		사전·사후(△변화량, 점)
지식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0.72 3.56 ↓ 4.27
인식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0.35 3.53 ↓ 3.89
태도	수업 실행에 대한 교수 효능감	+0.22 3.77 ↓ 3.99

△(변화량)는 반올림 이전의 원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반올림 오차로 인해 단순 차감한 값과 표기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

✓ 지식 - 차별 개념에 대한 지식

정오형(○ 그렇다 / × 아니다 / 잘 모르겠다)

문항및 정답	정답률, %
	△변화량, %p 사전 → 사후
차별은 나쁜 의도를 가졌을 때만 일어난다. ❖ 정답: ×	+25.9 56.5 → 82.4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차별이다. ❖ 정답: ○	+18.7 46.4 → 65.2
어린이라서 카페 입장을 거부당하는 것은 차별이다. ❖ 정답: ○	+14.8 73.9 → 88.6
개인의 작은 행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4.30 69.7 → 74.0
여자라는 이유로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다. ❖ 정답: ○	+1.10 92.9 → 93.9
법이 생기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된다. ❖ 정답: ○	+0.70 66.0 → 66.7
차별은 한 사람이 가진 여러 특성 중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일어날 수 있다. ❖ 정답: ○	-2.10 70.8 → 68.7
영역 평균	+9.1%p 68.0 → 77.1

- 학생들에게 차별 개념에 관한 7개 문항을 제시하여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습니다. 분석 수치는 각 문항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지식 영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68.0%에서 77.1%로 9.1%p 상승하여, **이 수업을 통해 차별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률 변화는 문항 별로 균등하지 않았으며, 그 편차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정답률이 가장 크게 오른 세 문항은 모두 차별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해 의도가 없어도 차별이 성립한다는 인식, 시설 미비라는 구조적 조건이 차별을 구성한다는 인식, 연령을 이유로 한 배제 역시 차별이라는 인식이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단을 유보하는 ‘잘 모르겠다’ 응답도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차별은 나쁜 의도를 가졌을 때만 일어난다.” 문항에서 ‘잘 모르겠다’ 비율이 21.4%에서 6.9%로 크게 감소하여, **판단 자체를 미루던 학생들이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회 변화와 제도의 작동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변화가 적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행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항은 정답률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법이 생기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의 정답률은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후자 문항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 또한 26.5%로 유지되어 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끝까지 판단을 유보 하였습니다.
- 이로 미루어 볼 때 차별의 개념은 확장되었으나 그 해결 경로에 대한 이해는 함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인식(1) - 차별 상황에 대한 민감도

Q) 다음 상황들이 얼마나 차별적이라고 느끼나요?

5점 척도 평균(전혀 아니다 ① ~ 완전 그렇다 ⑤)

세부 문항	△변화량, 점
• 여학생에게 '여자답게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	+0.18 4.29 ➔ 4.47
•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	+0.05 4.69 ➔ 4.73
•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시하는 것	+0.07 4.66 ➔ 4.73
• 성적이 높은 학생들 먼저 급식을 먹는 것	-0.02 4.55 ➔ 4.53
•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시험 시간을 2배 더 주는 것	-0.20 2.80 ➔ 2.61
영역 평균	+0.02 4.20 ➔ 4.21

△(변화량)은 반올림 전 원자료 기준

-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이 얼마나 차별적이라고 느끼는지 5점 척도(전혀 아니다 ① ~ 완전 그렇다 ⑤)로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 수치는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부터 **차별 민감도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프로젝트 수업을 거친 후에는 4.21점(+0.02)으로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문항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 먼저 “여학생에게 ‘여자답게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 문항이 4.29점에서 4.47점으로 0.18점 상승했습니다. 이는 **교실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 섞인 발언이 명백한 일상적 차별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보다 민감하게 포착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0.05)이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시하는 것”(+0.07)은 사전 점수가 이미 4.6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기에 사후 조사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종·국적·빈곤에 따른 차별 금지가 학생들에게 이미 보편적인 인권 감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뜻합니다. 능력주의적 관행을 다룬 “성적이 높은 학생들 먼저 급식을 먹는 것” 문항 역시 사후 4.53점으로 높은 문제의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지목하는 지표는 마지막 문항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시험 시간을 2배 더 주는 것”은 차별 상황이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므로, 척도를 뒤집은 역채점 점수는 사후에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역채점 점수는 사전에 2.80점에서 사후 2.61점으로 오히려 0.20점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평등을 오직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형식적 평등관이 수업 이후에도 교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수업을 통해 차별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차별이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까지 차별로 의심하게 되는 ‘과잉 일반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입니다.

- 어느 쪽이든 **현재 프로그램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거대 담론 위주의 차별 금지 교육을 넘어, ‘조건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정당한 배려’가 왜 평등의 실현인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활동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 인식(2) - 자기 경험의 재인식

5점 척도 평균(전혀 아니다 ① ~ 완전 그렇다 ⑤)

문항 (사전·사후) (사후 문항은 '수업 후 다시 생각해보니'라는 전제를 포함)	△변화량, 점
• 나는 차별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0.29 2.62 → 2.92
• 학교에서 누군가 무시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07 2.89 → 2.82
• 차별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 → 아직도 그게 차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다.(역채점)	+0.68 3.19 → 3.87
영역 평균	+0.30 2.90 → 3.20

△(변화량)은 반응량 전 원자료 기준

- 학생들이 수업 후 과거의 차별 관련 경험을 되돌아보고 재정의하는지 파악하고자 5점 척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후 문항은 '수업 후 다시 생각해보니'라는 전제를 포함하여 설계되었으며, 분석 수치는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영역의 수치 변화는 학생들이 단순히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모호했던 경험을 명확히 해석해 내는 성찰적 해독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첫 번째 문항과 역채점 처리된 마지막 문항의 동반 상승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나는 차별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은 0.29점 상승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을 차별로 인식하는 학생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세 번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판단의 모호함이 크다는 것을 뜻하므로, 다른 문항들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 점수를 반대로 환산하는 역채점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 문항 역시 0.68점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판단의 모호함이 뚜렷하게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두 문항의 변화를 함께 보면 과거에는 판단 기준이 없어 “헛갈려서 그냥 넘어갔던” 모호한 경험들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기준에 비추어 재해석되면서 “그때 그것이 차별이었다”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 이 두 문항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됩니다. 과거에는 모호한 불편함이나 불쾌감으로만 남아있어 ‘차별인지 아닌지 헛갈려’ 물어두었던 경험들이 수업을 통해 차별의 개념을 확장하고 기준을 정립하면서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차별이 맞았구나’라고 **선명하게 재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판단 기준을 얻으면서 과거 경험에 대한 모호함은 해소되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꼈던 직접 경험의 정체는 차별로 뚜렷해진 것입니다.
- 한편, “학교에서 누군가 무시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문항은 점수가 0.07점 감소하며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에도 목격 지표가 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관찰한 구체적 사건의 총량 자체가 변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경험보다는 ‘나의 직접 경험’을 재인식하는 능력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종합하면 본 영역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얻은 ‘판단 기준’을 활용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성공적으로 재인식해냈음을 증명**합니다. 헛갈리던 경험에 뚜렷한 이름을 붙이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옹호하는 중요한 인지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 태도 - 차별에 대한 태도와 실천 의지

5점 척도 평균

문항 (사전·사후) (사전 문항은 평소의 실제 행동을, 사후 문항은 향후 행동 의향을 묻는 형태로 전환)	△변화량, 점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캠페인이나 서명 같은 활동에 참여하곤 한다. → 참여할 것이다.	+1.00 2.56 → 3.56
•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평등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생각한다.	+0.30 3.94 → 4.24
• 일상에서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말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그냥 넘기지 않는다. → 넘기지 않을 것이다.	+0.27 3.25 → 3.53
•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걸 신경써서 말한다. → 말할 것이다.	+0.23 3.86 → 4.09
•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다른 나라 출신, 장애, 다른 성별 등)을 만났을 때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한다. → 노력할 것이다.	+0.16 4.23 → 4.39
영역 평균	+0.39 3.57 → 3.96

△(변화량)은 반올림 전 원자료 기준

- 학생들이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실천적 태도와 실천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본 영역의 문항은 사전 조사에서는 ‘평소의 실제 행동’을, 사후 조사에서는 ‘향후 행동 의향’을 묻는 형태로 전환하여 설계되었으며, 분석 수치는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의 점수가 상승하여, 프로젝트 수업이 학생들의 실천 의지를 고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 차원의 다짐을 넘어 사회 참여적 행동 의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문항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캠페인이나 서명 같은 활동에 참여하곤 한다(사전) → 참여할 것이다(사후)”로, 점수가 무려 1.00점 상승하였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항목이 교육 후 가장 큰 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캠페인이나 서명 같은 사회적 실천을 내가 해본 적 없는 막연한 일로 여기던 학생들이, 수업을 거치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제도적 대안에 공감하는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평등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역시 0.30점 상승하며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지식 영역에서 ‘법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해결 경로)는 다소 정체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수업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일상 속 실천을 다짐하는 지표들도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일상에서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말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0.27점)와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걸 신경 써서 말할 것이다”(0.23점) 문항 모두 사후에 각각 3.53점과 4.09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변의 차별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주체로서의 다짐과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성찰적 태도를 동시에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한 문항은 타인을 대하는 개방성을 묻는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로 사후에 4.39점(+0.16점)에 도달했습니다.
- 다만, 본 영역의 해석에서 한 가지 유의할 지점은 문항의 형태가 ‘과거의 실천 경험’에서 ‘미래의 다짐’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후 점수의 전반적인 상승은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강력한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다짐이 실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실 안팎에서 캠페인, 서명, 언어생활 모니터링 등 학생들이 다짐한 행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교사에게 나타난 변화

✓ 지식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Q)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변화량, 점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차별의 정의, 금지 영역 등)을 알고 있다.	+0.62 3.47 → 4.09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있다.	+0.83 3.53 → 4.36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쟁점을 이해하고 있다.	+0.70 3.67 → 4.36
영역 평균	+0.72 3.56 → 4.27

△(변화량)은 반올림 전 원자료 기준

- 서포터즈 교사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5점 척도로 조사 하였습니다. 본 영역의 분석 수치는 사전(15명)과 사후(11명) 전체 응답자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하여 영역 평균이 3.56점에서 4.27점으로 0.72점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교육 실천과 연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 특히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문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있다”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교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부의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자신이 서 있는 교실과 학교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쟁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 역시 0.70점 상승하여, 교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나 오해, 사회적 갈등 지점을 교사가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파악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교실에서 학생들이 관련 쟁점을 질문하거나 토론할 때, 교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문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종합하면,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명확히 다지는 동시에, 이를 ‘교실 현장’과 ‘사회적 쟁점’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확장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인식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Q) 차별 및 인권 관련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세부 문항	△변화량, 점
학생들은 차별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0.52 3.67 → 4.18
학생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0.53 3.20 → 3.73
학생들이 차별 관련 수업에서 불편함이나 저항감이 없다.	+0.53 3.47 → 4.00
학생들은 학급 내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0.16 3.80 → 3.64
영역 평균	+0.35 3.53 → 3.89

△(변화량)은 반응량 전 원자료 기준

- 프로그램 전후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차별 및 인권 관련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5점 척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영역은 사전 조사에서는 ‘수업 전 교사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의 상태나 우려’를, 사후 조사에서는 ‘수업 후 실제 학생들이 보인 반응을 관찰한 결과’를 묻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 분석 결과, 전체 4개 문항 중 3개 문항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하여 영역 평균이 3.53점에서 3.89점으로 0.35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전에 예상하거나 우려했던 것보다 실제 수업 과정에서 목격한 학생들의 참여 및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들의 관심과 생각의 깊이입니다. “학생들은 차별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교사의 체감이 0.52점 상승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 역시 0.53점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차별이나 법제도 담론이 너무 무겁거나 어려울 것이라는 교사들의 사전 걱정과 달리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생각과 언어를 형성해 나갔음을 교사들이 직접 관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 현장 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지점은 “학생들이 차별 관련 수업에서 불편함이나 저항감이 없다”는 지표의 상승(+0.53점)입니다. **인권 및 차별 교육을 교실에 도입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학생들의 반발이나 교실 내 갈등 유발에 대한 우려)**이 실제 수업 환경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인 문항은 “학생들은 학급 내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였습니다(-0.16점). 이에 대해서는 앞선 학생 데이터(형식적 평등관 및 과잉 일반화 현상)와 연계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업 전 교사들은 아이들이 일상적인 차별 언행에 꽤 민감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막상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역차별로 오인하는 등 학생들이 가진 평등관의 한계나 미숙함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관찰 결과가 사후 평가 점수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종합하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차별 교육에 대해 **한층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사들 또한 이러한 교실 내 변화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교육적 효능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교실 내 일상적인 차별 언행에 학생들이 정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끄는 실천적 감각은 몇 차시 수업만으로 즉각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학급 운영 및 생활 지도 전반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세밀한 피드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태도 - 수업 실행에 대한 교사 효능감

Q) 사전: 차별 및 인권 관련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후: 지금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세부 문항	△변화량, 점 사전 → 사후
학생이 차별 관련 주제에 불편함이나 저항감을 보일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0.53 3.47 → 4.00
교사는 학생들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0.24 4.40 → 4.64
학교 내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발견했을 때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0.18 4.00 → 4.18
동료 교사나 보호자의 반발이 있더라도 인권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0.08 3.73 → 3.82
차별 관련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부담이 없다.	+0.28 3.27 → 3.55
차별금지법을 소재로 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자신이 있다.	-0.01 3.73 → 3.73
영역 평균	+0.22 3.77 → 3.99

△(변화량)은 반응량 전 원자료 기준

- 교사들이 차별 및 인권 관련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실천적 자신감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5점 척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6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점수가 상승하여 영역 평균이 3.77점에서 3.99점으로 0.22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수업 실행 과정이 교사들에게 현장 대처 능력과 당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문항은 “학생이 차별 관련 주제에 불편함이나 저항감을 보일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로, 0.53점 상승하였습니다. 앞선 ‘학생 인식 지표’에서 학생들이 실제 수업 중 저항감을 보이지 않았음을 교사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에 대처하는 교사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대처 효능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차별 관련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부담이 없다”는 문항 역시 0.28점 상승하며 부담감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교사의 실천적 당위성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연대 의식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은 사전에도 4.40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사후에 4.64점(+0.24)으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동료 교사나 보호자의 반발이 있더라도 인권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0.08)는 지표와 “학교 내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발견했을 때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0.18)는 실천 의향 역시 사후 각각 3.82점과 4.18점으로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 반면, 유일하게 정체된 문항은 “차별금지법을 소재로 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자신이 있다”였습니다(-0.01). 이는 앞선 효능감 및 당위성의 상승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정체는 프로젝트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업 자료가 조정되며 차별금지법을 전면에 내세워 가르치지 않았던 현장의 맥락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이라는 소재를 명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이 수용하기 알맞은 형태로 수업 내용과 자료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해당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설계 및 실행 자신감 지표는 사후에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종합하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이 실제 수업 실행을 통해 학생들의 저항감에 대한 우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적 개입 의지를 단단히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수업 자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만큼, 향후 교사들이 이 소재를 주저 없이 활용하여 독립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수업 자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수업 운영의 어려움 - 사전 예상과 실제 경험의 대비

Q) 사전: 차별·인권 관련 수업을 한다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후: 수업을 실제로 진행해보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사전(예상) 15명 · ■ 사후(경험) 11명 / 중복 응답

항목	해당 항목을 선택한 교사의 비율
학교·관리자의 눈치나 민원 우려	33% 5명 9% 1명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지식부족	33% 5명 9% 1명
보호자의 민원 우려	67% 10명 45% 5명
동료 교사의 무관심 혹은 반대	20% 3명 0% 0명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때 수업 진행하기	40% 6명 27% 3명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 부족	20% 3명 9% 1명
민감한 내용(성적 지향 등)을 다루는 꺼려짐	33% 5명 36% 4명
학생의 무관심이나 회피적 반응 다루기	40% 6명 45% 5명
학생 수준에 맞는 언어와 내용으로 설명하기	67% 10명 73% 8명

- 교사들이 차별 및 인권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며 예상했던 어려움과 실제 수업을 실행 하면서 겪은 구체적인 어려움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영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한 항목으로, 사전(15명)과 사후(11명) 전체 응답자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한 교사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 사전 설문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어려움은 “학생 수준에 맞는 언어와 내용으로 설명 하기”와 “보호자의 민원 우려”로, 각각 15명 중 10명(66.7%)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마친 뒤의 응답에서는 두 항목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교사들이 수업 전에 걱정한 것은 대체로 ‘교실 밖의 일’이었으나, 실제로 맞닥뜨린 난제는 ‘교실 안의 일’이었습니다.

막연한 위축감을 넘어: 실제 실행으로 증명된 교실 밖 부담의 해소

- 가장 무겁게 다가왔던 외부적 통제나 민원에 대한 부담은 수업 실행 후 큰 폭으로 감소하 였습니다. “보호자의 민원 우려”는 66.7%에서 사후 45.5%로 줄었으며, “학교·관리자의 눈치나 민원 우려” 역시 33.3%에서 9.1%로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동료 교사의 무관심 혹은 반대”는 사전에 3명이 선택하였으나 사후에는 단 한 건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교사 스스로 느꼈던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지식 부족”과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 부족”을 꼽은 응답도 사후에는 각각 1명(9.1%)으로 줄었습니다.
- 이처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들을 위축시켰던 부담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현실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 설문에서 11명 중 4명이 「예상보다 어렵지 않았다」 라는 선택지를 고른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 해당 선택지는 사후 설문에만 포함되어 있어 그래프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학생 눈높이 설명과 역동 다루기

- 반면, 수업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지표가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프로그램 개선의 핵심 지점을 시사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언어와 내용으로 설명하기”는 사전 66.7%에서 사후 72.7%로 오히려 비중이 높아져, 사전과 사후 모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난제로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무관심이나 회피적 반응 다루기”(45.5%)와 “민감한 내용(성적 지향 등)을 다루는 꺼려짐”(36.4%) 역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수업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교사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교수·학습 방법론적 과제**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 이러한 결과는 앞선 데이터들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실제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진 평등관의 한계를 목격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학생용 학습 자료를 유연하게 수정·전환하여 실행했습니다.

즉, **차별과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법제도 담론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번역하고 교실 안의 역동을 다루는 작업의 난이도가 한 차례의 실행 경험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5. 종합 및 제언

✓ 종합 결론: 교실 안팎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1

학생의 차별 인식 변화와 경험의 언어화

-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의 정의를 기존의 ‘나쁜 의도를 가진 노골적 행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조건 및 제도의 미비’로 확장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차별 판단의 모호함이 줄어들면서, 일상의 불편함을 ‘차별’로 선명하게 명명하고 자신의 삶에 배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교사의 인식 확장과 막연한 두려움의 감소

- 교사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법제도의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전 학생들의 무관심과 저항감, 보호자의 민원, 관리자의 시선 등 교실 내·외부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수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이러한 두려움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교차 검증을 통한 단기 차시의 한계 발견

- 교사가 관찰한 학생들의 높은 몰입도는 학생 설문에서 확인된 지식 확장 및 경험의 재인식과 맞물립니다. 반면, 학생들은 타인의 상황을 목격하는 감각에서 정체를 보였고, 교사 역시 학생들이 일상 속 차별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에서 유일하게 개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업의 단기 분량(약 6차시)이 지닌 구조적 한계임을 시사합니다.

✓ 개선 과제 및 제언

1

형식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 평등관' 교육의 정립

- 맥락이 제거된 공정의 한계 극복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곧 공정함이라는 일차원적 인식을 넘어, 각자가 놓인 맥락과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 개념을 차별금지 교육의 핵심 주제로 배치해야 합니다.

- ‘역차별’ 오개념 및 반발 해소

장애 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을 역차별이나 특혜로 인식하는 경향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등적 지원이 왜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필수 조건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내용 구축이 필요합니다.

2

‘개인적 당사자성’에서 ‘사회 구조적 이해’ 및 ‘일상의 실천’으로의 시선 확장

- 인식의 확장 단계 설계

미시적인 개인의 차별 피해/감수성 인식에서 출발하되, 타인의 불평등에 대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사회 구조(법·제도·관습)가 차별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거시적 분석 능력으로 확장되는 교육과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 지속적·선형적 교육 구조 체계화

단발성 인식 제고에 그치지 않고, 인지적 이해에서 행동적 실천 및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차시 간/학년 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정교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 일상적 교육 활동 및 학급 문화로의 내면화

차별금지 교육이 특정 차시로 끝나지 않고 학급 규칙, 생활지도, 학교 문화 전반으로 지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학교 교육과정 내 차별금지 관련 성취기준 확보

차별금지 및 인권 교육이 일회성·선택적 수업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 과정 차원에서 명확한 관련 성취기준 및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제도적 근거와 구체적인 단위 연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밀착형 가이드 제공

교사들이 각 교실의 맥락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수업을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오개념 교정용 맞춤형 발문 가이드 등 현장 밀착형 자료를 정교화해야 합니다.

6. 숫자에 담기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

서포터즈 교사들이 먼저 수업을 실천해 보는 동안 교실에서 만난 변화와 고민, 그리고 오래 남은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수업은 정해진 수치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뜻밖의 질문으로 교실을 채웠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 역시 아이들과 함께 깊어지고 성장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는 다 전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남겨둡니다. 이 소중한 기록이 새로운 수업을 시작할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안내서이자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

정체성 스티커 활동

1주제 수업 중 조각 스티커로 정체성을 표현해 보는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스티커 활동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선생님과 노동자

“선생님도 노동자예요?”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 노동의 참된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택 게임 소감

2주제 선택 게임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효율을 중요시하는 주장을 펼치는 역할을 맡았던 한 학생은, 그 역할을 맡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흑백법’에서 ‘무지개법’으로

‘무지개법’을 만든 모둠에서는 처음에 흑인 차별 금지를 뜻하는 ‘흑백법’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둠의 다문화 친구들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무지개법’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차별 문제

인식의 전환

수업 초반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에 대해 포스트잇을 붙이는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이 선택한 이유도 함께 적어보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요즘에는 별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통이다’에 많이 붙인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수업 후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약 60%의 학생들이 처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바꾼 지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차별 민감도
향상

수업 후 학생들의 차별 민감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일상 속에서도 “이거 차별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 속
혐오표현 인식

미디어나 콘텐츠 속 혐오표현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 명의 양육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홀수’라고 부른다는 예시를 들려주었을 때, 장난처럼 웃어넘기는 학생이 있는 반면 심각하게 놀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개인적 차별에서
구조적 사고로
확장

그동안 ‘선생님이 차별해요’, ‘엄마가 차별해요’처럼 개인적·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사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 학습 이상의 부수적 교육 효과를 거두었으며, 어려운 주제였던 만큼 아이들의 생각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학교 시설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기 어려울지 생각해 보는 물음에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음을 지적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다니게 된다면 교실을 1층으로 옮기는 등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바라보는 시각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 수업으로 과연 무엇이 바뀌려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6차시까지 마친 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법안을 바라보니 분명한 배움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법과 제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혐오 발언 감소와 인식 변화

최근 학생 간 혐오 발언이 심해 담임교사가 지도했음에도 ‘혐오와 편견도 나의 권리’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업 후 적어도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발화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이’라는 단어를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는 빈도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업 전 부담감이 무색할 만큼 학생들과 즐겁게 참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수업으로 새겨진 질문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교사 역시 학생들에게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표현 관련 도서를 찾아보며,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과 해외 사례 등을 깊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전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컸지만,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배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동료장학 수업 중에는 참관하던 한 선생님이 자녀 출산 당시 한 달 만에 복귀 전화를 받고 강사 비용의 절반을 사비로 부담하셔야 했던 이야기를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경악하며 지금의 제도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용기가 필요했던 수업이었지만, 마치고 나니 지레 겁먹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연수에서 받은 포스터도 학생들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제 더 민감한 교실에서 세상을 들쭉일 만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교실 내 이전 대통령 모욕 발언이나 졸업앨범 촬영 기사의 성차별·동성애 혐오 발언 등 학교 안팎에서 쏟아지는 혐오표현을 접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은 차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민감성을 키웠으며,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맥락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업에 이어 국어 매체 단원과 연계해 캠페인 동영상 제작까지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지만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단순 주의에 그치곤 했습니다. 교사가 먼저 민감성을 키우고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지도법 공유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이 각자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민 중인 학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수업이 그 학생에게 앨라이(연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가 지워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경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한 교실 [교사용 수업 안내서]

발행인	김수진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아웃박스
홈페이지	https://outbox.kr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아웃박스 outbox.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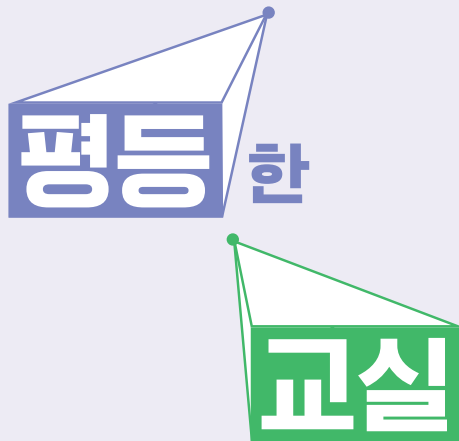
교실을 예민하게 세상을 들썹이게, **아웃박스**

2017년, 교실 안의 작은 고민에서 시작된 아웃박스의 발걸음은
이제 성평등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아웃박스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교사용 수업 안내서



아웃박스 outbox.kr

